

신년사

2022년 호랑이해



“시민의식과 문화예술 지수 함양에 앞장”

코리아문화신문 발행인 이연화

코리아문화신문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우리는 대망의 2022년 새해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희망의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터널도 점점 빛이 보이게 되어 희망의 한 걸음으로 회복이 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던 우리 대한민국 정부방심도 그러했듯이, 월 새 없이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 왔기에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던

대한민국 신장된 나라로 급성장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K-문화가 세계적인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고 개선시켜 갈 수 있도록 코리아문화신문이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회복, 포용, 도약’의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고 함께 동행하여 정확한 보도와 취재로



언론의 바른길을 견뎌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잡고 세워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문화신문에서는 시대적 변화와 니즈에 부응하도록 늘 변화하며 역동적인 기사와 정보를 통하여 글로벌 시민의식과 문화예술 지수를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참여언론으로서 누구나 동참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코리아문화신문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화목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호랑이 처럼 맹렬한 기세로 내달리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회장 전지연

2022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農虎之勢로 달려나갑시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태양이 질푸른 바다와 어둠을 박차고 잠들어있던 대지를 깨웁니다.

새 아침을 비추는 태양의 활력 넘치는 기운을 받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가족 여러분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세 사그라들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여전히 곁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에 있어 2021년은 불확실성과 한해가 아닌, 확신에 찬 희망과 새로운

시세(農虎之勢)라 부릅니다. 올 한해, 보다 찬란한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새해 호랑이의 기세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난관을 용맹하게 돌파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확장의 가능성으로 아로 새겨진 해였습니다.

새로운 가치와 도전을 위해 자신감 회복으로 소중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이른 새벽, 사냥을 목표로 하는 호랑이는 무척 맹렬하게 달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 기세를 일컬어 신호

지세(農虎之勢)라 부릅니다. 올 한해, 보다 찬란한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가족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새해 호랑이의 기세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난관을 용맹하게 돌파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경남실버문화예술단 창단

이사장에 임윤선 대성스님
“문화와 예술 발전에 매진”

사단법인 경상남도 실버문화예술단 창단식이 지난 해 12월 29일(수) 오후5시 청룡사 내부 전시장에서 실버문화예술단원 총 50여명 중 약 20여명이 모여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약소하게 개최됐다.

이날 청룡사 임윤선 대성스님은 실버문화예술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상남도 실버문화예술단은 경상남도 문화원과 함께 공생하며 문화예술단원들의 문화발전과 개선방향을 위해 함께 공유하며 소통해 나아가겠다” 며, 3월이나 4월경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경남도 실버문화예술단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손준배, 부회장 권태만, 예술단 단장 진양호, 가수분과위원장 김진주, 홍보위원 장복연, 고숙화, 연주분과위원장 심일보가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고 고성문화원 원장 도홍홍, 경남문화원 연합회 회장 김갑수, 모직사 총효스님, 청룡사 주지스님이 축하의 화환과 축하의 사신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사경남도 실버문화예술단 추진위원회 회장 손준배, “문화와 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진주와 힘을 합쳐서 예술인들의 한분한분을 가족처럼 모시고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코로나 회복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경제, 문화가 큰 힘이 될 수 있고 문화발전이 되기를 우리 실버문화예술단이 기필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룡사 주지스님은 “경상남도 실버문화예술단의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격려사를 해 주었으며, 진양호 예술단장은 “실버와 만남이 진주에서 시작에서 많은 회원들이 행복하고 가수들이 노래들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 것이다.”는 포부를 밝혔다.

“40개 종별 단체 등록...위축된 일상에 날개”

(사)대한생활체육회 총재 김균식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대한생활체육회 총재 김균식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국성을 부리는 통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난국인지 모든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천년 한민족의 저력과 어려움을 수족 서로 돕고 하나 되는 우리 국민의 슬기와 지혜로 견뎌내고 있으니 합찬 응원 박수를 보냅니다.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여기며 움츠렸던 모든 육체적 활동을 다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추적인 시기에 (사)대한생활체육회 활성화는 국민건강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이 혼자 하는데 아닌 만큼 원팀의 협동과 상대 방과의 열띤 승부정신으로 정신적 행복까지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늘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시련을 이겨내 바왔으며 이번 코로나19 또한 언젠가 이겨낼 질병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 여러분이 인내와 협동으로 잘 이겨내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탄탄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민체육의 환경이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사)대한생활체육회는 창립 이래 40개 종별 단체 등록과 17개 시도 별 회장에 대한 임명식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



인 출현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열광하고 참여함으로써 뜨거운 환호성과 응원 소리가 전국의 운동장에 퍼지는 그날, 그날이 곧 오리라 믿으며 임인년 새해에도 각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웃 간에 서로 위해주며 응원하는 국민이길 믿습니다.

위축된 일상에 활기찬 날개를 달고 좁은 방에서 넓은 운동장으로 합창해 달려 나가는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하며 (사)대한생활체육회 모든 임, 회원들을 대신하여 정중히 인사에 거듭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 통해 다시 일어서자”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장 정승현

안녕하십니까?

사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장 정승현입니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띠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호랑이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용맹함의 상징이자 집주와 액운을 막아주는 영물로 손꼽힙니다.

가짐없는 호랑이 기세와 용맹함으로 목표하신 모든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3년계속된 “코로나19팬데믹”은 우리에게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올 해도 쉬사그라질 것 같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보된 과학기술, 새로운 기술과 가치로 이겨내 왔고, 또 앞으로 반드시 극복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낼 것입니



다. 존경하는 코리아문화스포츠 애독자 여러분! “동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미래를 기대한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작은 시간에 불과 할 것입니다.

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기지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면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할 시기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21년 한 해를 뒤로한 채 2022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성비 좋고 맛도 훌륭한 전철우사거리 회 · 매운탕 · 계절음식 맛집!!

해물찜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81
예약환영 523-7903

